

석유화학, 한국-싱가폴 FTA “긴장”

9월 7-9일 타이에서 실무협의 개최 ... FTA 제외 대상에 촉각곤두

한국과 싱가포르가 9월 7-9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타이 방콕에서 개최한다고 외교통상부가 9월4일 밝혔다.

실무협의에서 양국은 검역조치(SPS), 기술장벽(TBT), 상호인정협정(MRA), 정부조달, 서비스, 투자 등 분과별로 쟁점사항을 논의하게 되며 미결 의제와 협정문안에 대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.

또 지난 4차 협상에서 이견을 보인 상품분야 양허안(시장개방 이행계획서)과 원산지 기준안을 중점 협의해 실질적인 의견접근을 이룰 방침이다.

외교통상부는 정부조달 및 서비스시장 진출여건 개선, 무역투자·방송·환경분야의 협력강화 등도 적극 추진해 상품관세 철폐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.

한편,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한국-싱가폴 FTA에서 석유화학제품을 대거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한 바 있어 실무협의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9/06>